

| | | | | |
|---|--|---|--|---|
|  | | 참 고 자 료 | |  |
|  | | 배포 일시 2020. 2. 14.(금) 총 13매(본문 5, 참고 8) | | |
| 담당 부서 해운정책과 | | 담당 자 • 과장 이시원, 사무관 김한울 - ☎ (044) 200-5710, 5715 | | |
| 보 도 일 시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한-중 항로 해운기업 등에 긴급 재정·금융 지원 추진

- 긴급경영자금 600억 원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 대응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및 대책 설명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월)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對)중국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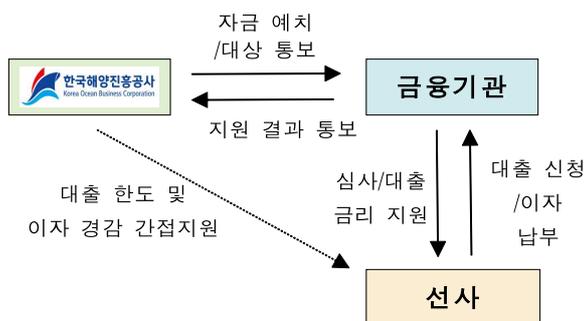
《 여객 운송 분야 》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 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 사업 구조(안) >



| 해양진흥공사 | | 금융기관 | |
|--------|----------|--------------|-----------------------|
| 예치 규모 | 최대 300억원 | 대출규모 | 최대 300억원 |
| 기간 | 1년(연장가능) | 대출한도 (1사 기준) | 20억원/사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 | | 대출기간 | 1년(연장가능) |
| | | 우대금리 | 실질적으로 2% 내외 |

둘째,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여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 항만 시설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 ** 여객운송 완전 중단(1.28~일부재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100% 감면(연 약 85억 원 추가 감면)
- *** 여객운송 일부 재개 기간(재개 후 ~ 감염 경보 해제) : (현행) 30% 감면(연 약 30억 원) → (개선) 60% 감면(연 약 30억 원 추가 감면)

셋째,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 연간 약 42.5억 원(인천 34, 군산 8.5)

《 화물 운송 분야 》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첫째,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 Sale & Lease Back :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임선하여 유동성을 지원

**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인하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20년 S&LB 예산은 1,000억 원이나, 필요 시 확대 추진)

둘째,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 하는 조치를 시행(2.5~)하고 있다.

* 운항 중 불가피하게 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를 받을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연장 인정(「선박안전법」시행령 제6조)

《 항만 운영 분야 》

對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對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

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對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규모 : 총 300억 원(1사당 최대 20억 원) / 금리 : 2% 내외 / 만기 : 1년

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항만공사는 신규 물량 유치 선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19 271억원 규모)
①최대규모 : (부산항) 14.3억 원, (여수항) 10억 원, (인천항) 2.5억 원, (울산항) 0.35억 원
②방식 : 코로나19 사태 기한 중 신규 물량 창출한 선사에 불륨인센티브 제공

** 환적화물을 다른 터미널로 육상 운송(ITT: Inter Terminal Transport)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시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대책 발표 후 당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 하역사,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1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선사 경영 악화 최소화

- (재정 : 항비 감면) 선사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여객 터미널 임대료’ 감면
 - ① 사용료 : 여객 운송 완전 중단(1.28~일부재개) : 총 100% 감면
여객운송 일부 재개(재개 후 ~ 경보 해제) : 총 60% 감면
 - ② 임대료 : 여객 운송 완전 중단(1.28~일부재개) : 총 100% 감면
여객운송 일부 재개(재개 후 ~ 경보 해제) : 총 50% 감면
- (금융 : 긴급경영자금)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동 자금으로 여객운송이 중단된 선사에 운영자금을 대출
 - * 규모 : 총 300억원(1사당 최대 20억원) / 금리 : 2% 내외 / 만기 : 1년

2 선사 경영 안정화로 원활한 [화물 운송] 체계 유지

- (금융 : S&LB)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S&LB(Sales&Lease Back)을 통한 유동성 공급
 - 대상 : 한-중항로 운영선박 / 지원 수준 : 기존 S&LB 대비 강화
 - * (현행) LTV 70~80% → (개선) LTV 80~90% / 금리 인하 신설
- (금융 : 납부 유예) 해양진흥공사에서 기존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의 S&LB 및 선박금융의 원리금 등에 대해 납부 유예 조치
 - 대상 : 한-중항로 운영선박 / 유예기간 : '20.2월 ~ 경보 해제 시
- (규제 : 선박검사 연장) 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수리가 지연되어 선박 검사기간이 초과된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시행중, 2.5~)

3 對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한 [항만 경쟁력] 강화

- (대체장치장) 중국 내 일시적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항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하여 유희선석, 항만 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확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사용료 감면, 부두 간 환적 비용 등 지원
- (금융 : 하역사 지원)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긴급경영자금 지원
 - *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동일한 규모·방식·조건 제공(총 300억원)

- (목적)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일시/장소) '20.2.17.(월) 16:00~17:00 / 선주협회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및 선사, 공사 등 약 40명
 - 카페리 : 한-중카페리협회 대표 3개사 사장
 - 선사 : 외항 정기·부정기 선사 각 4개사 사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하역사 : 대표 3개 하역사 사장
 - 공사 : 4개 항만공사(BPA, IPA, YGPA, UPA) 사장, 해양진흥공사 사장
 - 관련협회 : 선박관리업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한국해운대리점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항만물류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 주요 일정

| 시 간 | 주요 내용 | 비 고 |
|----------------------|--|----------------|
| 16:00~16:02 (2') | ○ 장관님 모두말씀 | 사회 : 해운정책과장 |
| 16:02~16:10 (8') | ○ 코로나19 관련 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해운항만업계 긴급지원대책 설명 | 해운물류국장 |
| 16:10~16:58 (48') | ○ 참석자 애로사항 청취 | |
| 16:58~17:00 (2') | ○ 장관님 마무리말씀 | |



질병관리본부
KCDC

나쁜 놈은 우리 곁에 있다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주요증상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

위험요인

중국 방문 후
증상 발현

중국 방문객은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동물
접촉 금지



발열, 호흡기증상자와의
접촉 금지
기침, 인후통 등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중국 방문 후, 증상*발생 시

*주요증상: 폐렴,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게시일 : 2020.1.29



당신의 여행력
 ✓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 2 손등
- 3 손가락 사이
- 4 두 손 모아
- 5 엄지 손가락
- 6 손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 2 옷 소매로 가리기
-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 | | | | |
|---|-------|-------------------------------|---|---|
|  | | 보 도 자 료 | |  |
|  | | 배포 일시 | 2020. 3. 2.(월) 총 4매(본문 4) | |
| 담당 부서 | 해운정책과 | 담당 자 | • 과장 이시원, 사무관 김한울 - ☎ (044) 200-5710, 5715 | |
| 보도 일시 | | 2020년 3월 2일(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 | |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신속 추진

- 사태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분야 지원 등 추가 대책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2일(월)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2.17 대책 추가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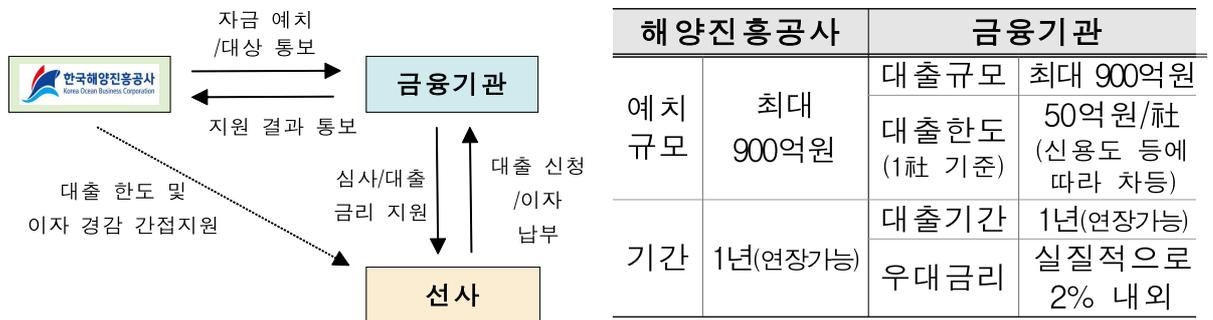
1. 화물운송분야

한·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 인하

< 사업 구조(안) >



둘째,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 \text{ (산식) } \quad \text{선사별 지급금액} = 50\text{억원} \times \frac{\text{개별 선사의 입항횟수}}{\text{전체 대상선박의 부산항 입항횟수 합계}}$$

셋째, 당초 이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필수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 현 사태로 인해 中 조선소가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中 조선소에서 친환경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일부 선사의 경우 대출금 상환 등이 불가피

2. 항만운영분야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첫째,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둘째,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 * 항만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대한 이자를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3. 한·중 여객운송분야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 * 군산항은 강제도선 면제 구역이므로 해당 혜택 미적용

《 신규 분야 지원 》

1. 한·일 여객운송분야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2. 연안운송분야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2.1~4.30)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5.1~)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 예산 조기집행 대상사업 : 준공영제 항로 결손 보조, 도시민 운임 보조, 국가보조항로 결손 보상, 유류세 보조, 전환교통 보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 |

| | | | |
|--|----------------|-------------------------------|---|
|   | 참 고 자 료 | |  |
| | 배 포 일 | 2020. 3. 11.(수) 총 2매(본문 2) | |
| 담당 부서 | 해양정책과 | 담당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김현태, 사무관 정태섭, 주무관 김진영 • ☎ (044)200-5710, 5718, 5727 |
| 보 도 일 시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해상여객운송사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 79개 외·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 근로자 2천여 명 지원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9일(월)까지 진행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직수당의 90%(일반적인 지원금은 휴직수당의 2/3까지 지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 관광운송업에 포함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외항 24개 업체 645명(한·중 항로 363명, 한·일 항로 282명), 내항 55개 업체 1,419명

그간 한·중 여객선사(14개사)는 지난 1월 30일, 한·일 여객선사(10개사)는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된 상태이며, 내항여객선사(55개사)는 올해 2월 기준 이용객이 전년 대비 39% 감소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여객운송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대상에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최종 포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를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고용 직원 해고 등 극단적인 조치없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